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3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덕조

맑고 향기롭게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3

시절 인연	02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2
법정 스님 편지	06	왜 오질 않고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08	모든 인간 가족 앞에 참회를
법정 스님 따라 하기	12	'알라바카 야차' 강론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바시라 뱃사공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지금은 그리움의 덧문을 닫을 시간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24년 3월 1일 발행 / 통권 349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및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 법정 스님 2000년 3월 경전반 강의 2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지 말고,
명상을 하다가 잠들도록 하라.

몸이 고단할 때는 꿈도 꾸지 않고 잘 자는데, 나이 들면 이 일 저 일 생각하느라 밤에 잠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게으름 피우고, 낮잠 잔 사람은 밤에 깨어 있어도 상관없는데, 진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잠을 달콤하게 잘 잡니다. 밤에 잠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경이 너무 섬세해서 걱정이 많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몸이 너무 편해서 잠에 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잠을 깊이 자야 휴식이 됩니다. 하루에 꼭 8시간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더 잘 수도 있고, 덜 잘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습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류 사회에 무엇인가 이바지한 사람들은 남이 잠든 시간에 깨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잠들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여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잠이 안 오는 것이지 진짜 내 몸에서 필요하다면 저절로 잠이 오게 됩니다.

저의 경험인데, 오래전 해인사에 있을 때 밤중에 자다가 산불이 나서 종을 치면 불을 끄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봄에 산골 사람들이 나물을 뜯으려고 산에다 불을 일부러 질렀는데, 스님들이 엄청 애를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깨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졸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필요하면 어떤 형태로든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용맹정진한다고 잠 안 자고 용을 쓰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아주 미세하게 잠이 들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몸이 휴식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력에 의해서 조금만 쉬어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몇 시간 자도 회복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밤에 잘 때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조용히 의식을 쉬게 해야 하는데, 몸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일단 다 내려놓고, 조용히 저 바닷속에 잠기듯이 조용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게 쉬다 보면 저절로 숙면할 수 있습니다.

간소하게 먹고 간편하게 입으라.

옛날에는 먹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 먹었는데, 요즘 건강식이 예전 우리가 못 먹던 시절의 식사법입니다.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햄버거, 피자를 먹는데 음식이 너무 기름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김치맛이나 된장 맛을 모르게 되다 보니, 체형은 멀쩡한데 체질이 약해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일도 이겨내지 못하고 나약해졌습니다.
먹는 것도 습관인데, 간소하게 먹고 간편하게 입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수행자들은 지금도 오후 불식을 합니다. 저도 지난 겨울부터 오후에는 먹지를 않습니다. 오후에 안 먹으니, 시간이 많습니다. 오후에 출출하면 차나 한잔 마시고, 산골 생수 한두 잔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하겠지만, 요즘 우리들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에 있습니다. 너무 기름지게 먹고, 너무 과식합니다. 잔뜩 먹고 소화제까지 먹고 나서 살찐다고 돈 들여가면서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동물들은 자기가 감내할 만큼만 먹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 먹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하게 먹고, 간편하게 입는다면 이 지구가 몸살을 덜 앓을 겁니다. 자원이 덜 낭비되고, 쓰레기가 덜 생길 것입니다.
불일암에 있을 때 저도 식탐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하는데, 국수를 한 사발 삶아서 김치에 걸쳐 먹고 나니 굉장히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절에 내려가서 한약재로 된 소화제를 찾아 먹고서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과식하지 않는데, 위장이 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금 배고플 때가 사람 정신이 가장 쾌적합니다. 너무 배부르면 사람이 무디어지고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먹고 간편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 몸은 겹겹으로 입는 걸 싫어합니다. 춥다고 감기 안 걸리려고 끼어 입으면, 몸이 호흡을 못해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과식하지도 말고 너무 기름지게 먹지도 말고 너무 겹겹으로 껴입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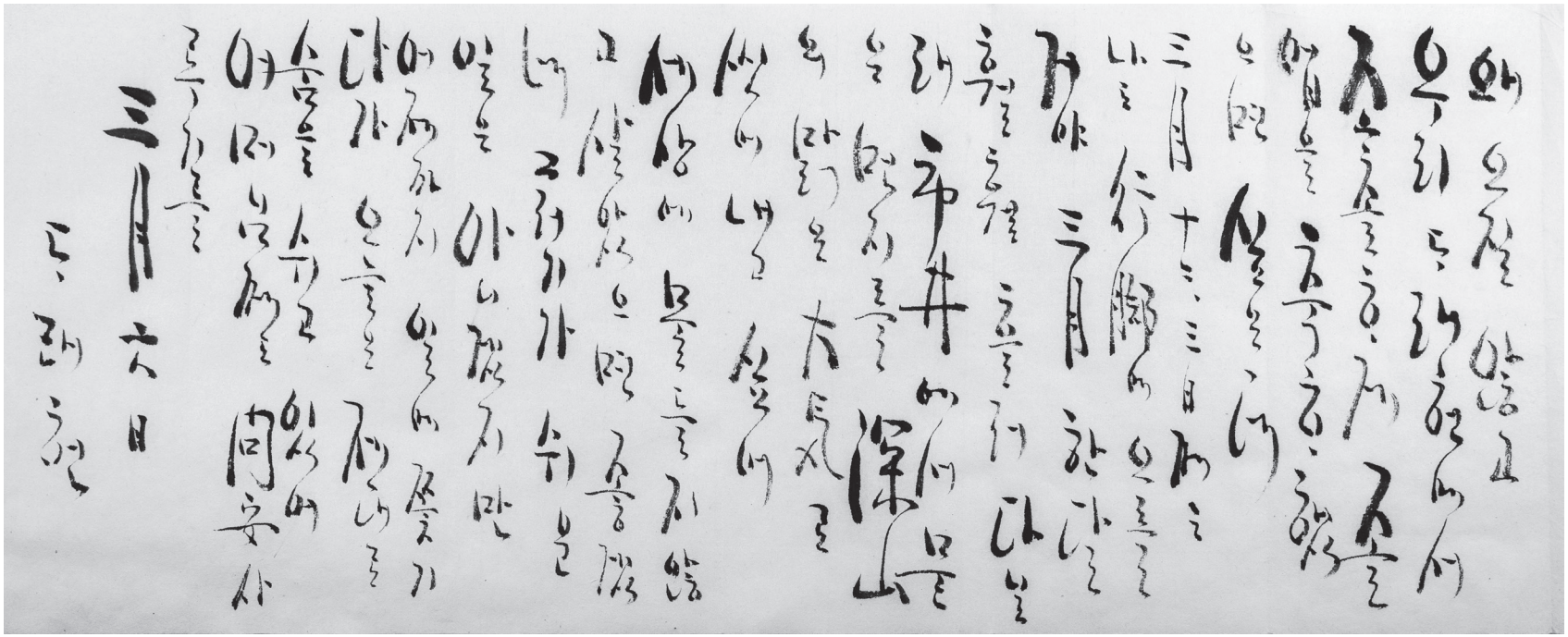
사람들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헤어지고
그 대신 자연과 가까이하라.

친구 만나는 날을 일주일 중에 언제 만날 것인지 정해놓고, 될 수 있으면 자연과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거 형태가 집단 주거 공간으로 흙냄새도 맡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과 우리가 거의 격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 자체가 지극히 부자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연과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의 질서라든가 내 안에 들어있는 자연의 요소가 싹 트게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볍게 내 몸에 맞는 산길을 산책한다든가, 들길을 산책한다든가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연을 가까이하라는 말입니다.

바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꽃구경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마음먹고 꽃구경을 가겠다는 그 마음씨가 얼마나 꽃답습니까? 꽃이 피었는지 말았는지 무감각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우리 심성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씨앗이 고갈되고 메말라집니다. 여고 시절에 호들갑을 떨면서 가던 꽃구경들, 그 시절 그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얼굴에 주름만 조금 졌을 뿐이지, 우리 마음이 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세월을 사는 게 아닙니다.
흙을 딛고 울타리며 담을 치고 살던 시절에는 하늘에 달만 떠올라도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달 떴다고 식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어디 달을 봅니까? 텔레비전에 떠오르는 달이나 보지, 우리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계절 따라서 꽃구경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한 생애를 두고도 우리가 꽃구경 갈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달라진 인간의 영역을 우리가 되찾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2000년 3월 31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설법전 경전반 강의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3회(2월호~4월호)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정 스님 편지



왜 오질 않고
우리 다래헌에서
조촐하게 졸업을
축하했으면 싶은데
三月 十二, 三日께는
나도 행각行脚에 오를거야
三月 한 달 훨훨 흘러 다닐래
시정市井에서 묻은 먼지를
심산深山의 맑은 대기大氣로
씻어내고 싶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제까지 일에 쫓기다가
오늘은 제대로 숨을 쉬고 있어
어머님께는 문안問安 사루기를

三月 六日
다래헌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4년 반야화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 가족 앞에 참회를

한물에 싸인 고기라는 말이 있다. 제복制服은 내면적인 개인차와는 상관도 없이 외부적으로 동일시 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집단 가운데서 소수가 아니라 단 하나만의 제복이라도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날 때, 그가 딸린 집단 전체가 오해와 더불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우리 인간사회의 불문율인 것 같다.
며칠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하동에서 승려의 관사冠詞가 붙은 전복만全福萬과 몇몇 여승들이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죄업을 저질러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물론 그 영향이 종단 전체에 수치스런 타격을 주고 있음을 더 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그들 개인의 업을 탓하기 전에 그들과 동일한 제복을 하고 있다는 동류의지同類意志로써 온 세상의 인간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가실 길이 없다.
신성한 인간권人間圈을 짓밟아버린 이 불미스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수치를, 너무나 값비싼 이 부채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받고만 말 것인가!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각성 없이는 이 무거운 채무는 영영 보상할 길이 없을 줄 안다.

그럼 어째서 그와 같은 일이 세간 밖인 출세간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단적으로 말해서 전혀 '승규僧規'가 부재한 무방비 지대에서 유래된 줄로 안다. 몇 가지 질서 이전의 일들을 지적하여 이의 시급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중 만드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제한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겠다. 산문山門을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신원을 알아보지 않고 또 구도자로서의 자질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받아들여, 들어오기가 바쁘게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혀 계戒를 일러준다는 것은, 종단의 장래를 두고 볼 때 일종의 자멸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구도의 길을 그처럼 편리하고 소홀하게 열어준다는 것은 도道 자체를 모독하는 일밖에 될 수가 없다. 엄연히 1년에 한 차례씩 본산本山의 계단戒壇에서 법답게 득도를 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의 패거리를 하나라도 더 늘이기 위해서인지 독살이 암자에서 제멋대로 급조하여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의제衣制가 마련되어야겠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 전全 이라는 자는 어디서 계를 받은 일도 없이 승복을 입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왕래가 자재한 자라고 한다. 사실 요즘 먹물 옷緇衣 승복은 천하리만큼 너무 흔해 빠졌다. 거리마다 채이도록 깔려 있는 회색灰色의 행렬이다.
옷만 가지고서는 그가 비구인지 비구니인지 혹은 행자인지 처사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러는 출가한 사문이 재가在家한 신도에게 먼저 절을 하게 된다는 비법非法스런 '넌센스'가 적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승가의 내막을 조금 알게 되면 설사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외형으로는 버젓이 승려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오늘의 우리 종단 실정이다. 이처럼 뒤죽박죽인 소지素地이니까 그러한 낮도깨비 같은 물건들이 설칠 수밖에 없는 인과의 논리가 서게 된다. 율장에도 칠중七衆의 옷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단의 질서를 위해서 하루바삐 의제衣制가 마련되어야겠다.

셋째, 남승男僧과 여승女僧이 한 지붕 아래서 침寢과 식食을 같이 한다는 것은 승규를 들출 것도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명분을 빌어 더러 있지만, 이것은 이번 일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위태로운 악습인 것이다.
니승尼僧들의 사원에서 남승男僧인 강사講師를 두는 일이 가끔 있다. 거기에는 '스캔들'이 으레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재고할 일인 것 같다.

넷째, 승단僧團의 통할기관인 중앙총무원에서는 수시로 승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보기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승려가 어디에 머무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알아둘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 일도 일부에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는데, 그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커다란 실책이다. 관용만이 자비가 아니다. 무능無能에게 자비의 탈을 씌우지 말라.

언젠가 '승려이동질서僧侶移動秩序法'이 의결을 거쳐 공포 실시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법法이 제대로 실행되었더라면 이번 일도 미연에 막았을 줄 안다. 실행 없이 명목만을 늘어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리라. 마치 어떤 산사에 걸리기만 하고 실實이 없는 야단스런 총림의 간판처럼 말이다.
이밖에도 바로 잡아야 할 승규僧規는 불가설不可說하게 많다. 이러한 승규가 공문서 한 장만으로 세워지리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면 그것은 판단 착오도 보통은 넘는다. 승규는 구제적인 수행을 통해서만 저절로 갖추어질 '도道의 덕德'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도제교육에 과감한 개혁 없이 이 혼돈에서 벗어날 출구는 없다.

이번 일은 결코 몇몇 개체의 허물만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 울려주는 경종일 수도 있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종단 전체가 져야 할 우리 공동의 부채이다.
이 무거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뼈에 사무친 각성이 있어야겠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적어도 우리 출세간에서만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피맺힌 자각이 있어야겠다.
제복制服은 곧 공동운명체다.
우리는 도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수치를! 이 수치를!

1965년 6월 6일

‘알라바카 야차’ 강론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 181~192 알라바카 야차에 대한 강론입니다.

월동 준비가 끝나고 나면 덧문을 닫고 이제는 안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새봄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밖으로 떠돌던 여로의 향向을 바꾸어 내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의타와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의 독립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거듭 실험하면서 안으로 다지게 될 것이다. 이래서 겨울은 자기 자신으로 회귀回歸하게 되는 고마운 계절이기도 하다. 안으로 거두어들임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여물이 들지 않는다. 여물이 들지 않은 빈 꺼풀을 가리켜 우리는 굳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의타와 의존이 정신의 독립성을 지니려는 사람에게 있어 얼마나 큰 해독이 되는가를, 나는 최근의 몇몇 경험을 통해 투철하게 확인한 바 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은, 인간 형성의 끝없는 여로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야차와 부처님 사이에 주고받은 되풀이되는 문답, 즉 ‘나가주시오’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이런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어서너 차례씩이나 오고 가는지. 세 번까지는 끈기 있게 야차가 시키는 대로 따르던 부처님도 네 번째에 가서는 ‘나는 더 나가지 않겠으니 네 할 일이나 해라’하며 단호히 거절한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두 번도 참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세 번씩이나 묵묵히 따라 주는 부처님의 인내력 또한 대단하다. 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감내하는 그 인내와 덕행에서 우리는 배울 바가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이며, 어떤 선행이 안락을 가져오며, 맛 중의 맛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냐고 묻는 야차의 질문은 우리들의 의문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지혜의 말씀이다. 믿음信仰이 으뜸가는 재산이라는 것. 호화로운 저택이나 승용차,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것이 으뜸가는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란 말은 자칫 관념적으로 들리기 쉽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자기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소중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삶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온다고 했다. 덕행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자신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에게 덕을 입히는 일이 선행이지만, 어떤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덕행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표현 달리하자면, 물질이건 마음이건 무엇인가를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그 일이 곧 덕행이 되고 피차가 안락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일상적인 경험이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에서 안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고, 안락 대신 불만과 불안이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덕행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런 삶의 태도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가르침이다. 진실이 맛 중의 맛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 될 거라는 가르침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삶의 교훈이다. 잇따라 제기되는 알라바카 야차의 적절한 질문은 우리에게 야차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여기에서 야차란 악독한 귀신이기보다는 끝없는 선善을 추구하는 선신처럼 느껴진다.

스승(부처님)의 가르침(184)은, 신앙으로써 생사의 격류를 건널 수 있고, 한결같이 꾸준한 노력(정진)으로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지런히 힘씀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써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청정은 곧 해탈과 열반을 뜻한다. 번뇌의 속박과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

여기에서 제기된 신앙과 정진과 근면과 지혜는 우리들 삶의 알맹이가 되어야 할 것들이다. 과연 지금의 나에게 그와 같은 신앙과 정진과 근면과 지혜가 갖추어져 있는지 어떤지, 경전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다 같이 돌이켜 살필 줄을 알아야 한다. 경전에 나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전을 읽는 태도가 곧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라바카 야차의 물음은 집요하다. 그것은 곧 참을 캐내려는 구도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고 재물을 얻으며, 또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고 친교를 맺으며, 저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겠느냐는 물음. 이에 대한 스승의 답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만큼 아주 요긴한 내용이다. 일찍이 많은 성자가 열반의 경지에 이른 그 도리를 확신하고 정진을 계속한다면, 바로 그런 열의에 의해서 지혜의 눈이 열린다(186)고 한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열의가 있는지 어떤지 묻고 살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알맞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누구나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성실을 다하면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며, 무엇인가를 나누어 줌으로써 친구가 된다는 가르침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진리란 엉뚱한 데 있지 않고 보편타당한 우리 일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재가 신자들에게 성실과 자제와 견고와 보시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이다음 세상에도 걱정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188) 했다. 그런데 네 가지 덕 가운데 '자제'는 원문에 '진리'로 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자제'로 고쳤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바로 다음 구절인 189에는 '진리'란 말이 안 나오고 '자제'로 나와 있고, 또 네 가지 덕으로 볼 때 진리보다는 자제 쪽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남방의 경전 용어인 팔리어로 진리는 'Dhamma'이고 자제는 'Dama'이다. 기록상 혼동할 수 있는 비슷한 용어다. 또 여기에서 네 가지 덕 가운데 하나인 '견고'는 불퇴전의 의지이며 끝없는 인내이기도 하다.

어쨌든 성실과 자제와 보시와 인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덕임에는 틀림없다. 성실성은 이웃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제력은 자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시켜 주며, 보시는 이웃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주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인내력은 삶의 의지력이기도 하다. 침잠의 계절인 이 겨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 것인지도 함께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지의 봄은 계절의 질서를 따라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의 봄은 인간 스스로의 창조적인 노력 없이는 찾아오지도 피어나지도 않는다. 이 겨울에 새봄을 생각해 보라.

바시라 뱃사공

선재동자가 누각성을 향해 길을 가며 살펴보니, 같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평탄한가 하면 험준하기도 하고, 깨끗한가 하면 더럽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곧게 뻗어 있기도 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내가 저 선지식을 가까이 모실 것이다. 선지식은 보살도를 수행해 성취하는 근원이고, 바라밀의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고, 중생을 거두어 주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다. 법계에 두루 들어가지만, 장애가 없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고, 중생의 나쁜 꾀를 없애게 하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고, 중생의 교만을 떠나게 하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다.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고, 중생의 여러 소견을 버리게 하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고, 중생의 온갖 나쁜 가시를 뽑게 하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고, 중생을 온갖 지혜의 성에 이르게 하는 도를 수행 성취하는 근원이다.

왜냐하면 선지식에게서 온갖 착한 법을 얻기 때문이며, 선지식의 힘으로 온갖 지혜의 길을 얻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누각성이 이르렀다. 그 뱃사공은 성문 밖 바닷가에서 수많은 상인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큰 바다의 법을 말하면서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방편으로 일러주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그 앞에 나아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뱃사공이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고, 이제 또 큰 지혜를 내는 근원을 묻는구나. 모든 생사의 괴로움을 끊는 인因과 온갖 지혜의 큰 보물섬에 가는 인과 무너지지 않는 대승大乘을 성취하는 인, 이승二乘들이 생사를 두려워하고 고요한 삼매의 소용돌이에 머무름을 멀리 떠나는 인, 큰 원의 수레를 타고 모든 곳에 두루해 보살행을 행해도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의 인, 보살행으로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장엄하는 청정한 도의 인, 시방세계의 법을 두루 살펴도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의 인, 온갖 지혜의 바다에 빨리 들어가는 청정한 도의 근원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대비당행大悲幢行을 깨끗이 닦았다. 염부제에 있는 가난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케 하는데,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우고, 그런 후에 다시 법의 재물을 베풀어 환희케 한다. 복덕의 행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선근의 힘을 북돋우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의 원을 맑게 하고, 대비력大悲力을 견고케 한다.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내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 주게 하고, 모든 공덕을 닦게 하고, 모든 법을 비추게 하고, 모든 부처님들을 보게 하고, 일체지一切智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나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바다에 있는 보물섬과 보배의 처소와 보배의 종류를 안다. 보배를 깨끗하게 하고 연마하고, 또한 온갖 보배를 만들 줄을 안다. 보배의 그릇과 그 용도와 그 광명을 안다. 나는 용궁의 처소와 야차 궁전의 처소와 부다部多(귀신의 한 종류) 궁전의 처소를 알고 잘 회피해 그것들에게서 입는 난을 면한다.

또 소용돌이치는 곳과 얕고 깊은 데와 파도가 멀고 가까운 것과 물빛이 좋고 나쁜 것을 잘 분별해 안다.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도수와 밤과 낮과 새벽과 시각과 조수가 늦고 빠름을 잘 분별해 알고, 배의 철물과 나무가 굳고 연한 것과 기관의 빡빡하고 헐거움과 물의 많고 적음과 바람의 순하고 거스름을 안다. 이와 같이 안전하고 위태로운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갈 만하면 가고 가기 어려우면 가지 않는다. 나는 이와 같은 지혜를 성취해 중생을 이롭게 한다.

나는 안전한 배로 상인들을 태우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하며, 다시 법을 설해 기쁘게 하면서 보물이 있는 섬으로 인도해 여러 보물을 주어 만족케 한 뒤 염부제로 돌아온다. 나는 큰 배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다니지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

어떤 중생이고 내 몸을 보거나 내 법을 듣는 이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애욕의 바다를 말리고, 지혜의 광명으로 삼세의 바다를 비추며, 중생의 고통 바다를 끝나게 한다. 중생의 마음 바다를 맑게 하고, 세계 바다를 빨리 청정하게 하며, 시방의 큰 바다에 들어가 중생의 근기를 알고, 중생의 수행을 알고, 중생의 마음에 두루 따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대비당행大悲幢行을 얻었으므로, 나를 보거나 내 음성을 듣거나 나와 함께 있거나 나를 생각하는 이는 다 헛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생사의 바다에 다니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허망한 소견을 버리고, 법의 성품을 살피고 네 가지 거두어 주는 법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준다. 이미 온갖 지혜의 바다에 머물러 중생의 애착을 없애고, 시간에 평등하게 있으면서 신통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들을 조복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면 가락可樂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무상승無上勝 장자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슬피 울면서, 선지식을 찾는 마음에 싫어함이 없이 하직하고 길을 떠났다.

지금은 그리움의 덧문을 닫을 시간

세상을 잊기 위해 나는
산으로 가는데
물은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간다
버릴 것이 있다는 듯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듯
나만 홀로 산으로 가는데

채울 것이 있다는 듯
채워야 할 빈 자리가 있다는 듯
물은 자꾸만
산 아래 세상으로 흘러간다

지금은 그리움의 덧문을 닫을 시간
눈을 감고
내 안에 앉아
빈 자리에 그 반짝이는 물 출렁이는 걸
바라봐야 할 시간

중 앙 모 임 (02-741-4696)

■ 법정 스님 입적 14주기 추모 법회 및 길상사 주지스님 이·취임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1932~2010)의 입적 14주기 추모 법회와 더불어 길상사 9대 덕일 주지스님과 10대 덕조 주지스님의 이·취임식을 3월 6일(음력 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합니다.

■ 2024년 '맑고 향기롭게 5기 대학 장학생' 공모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선발하고자 2024년도 제5기 대학 장학생을 공모 접수합니다.

● **장학생 선발 대상**

구분	신청 자격(가, 나, 다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발원 취지에 공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2년제 이상 대학생
나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불교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예: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에 한함
다	소득 구간 5구간 이하

● **지원 금액** : 400만원 (200만원 *2회 분할 지급)
● **서류 접수** : 4월 15일(월) 우편 소인까지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맑고 향기롭게 앱(APP) 사용해 보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앱(APP)을 내려받아 이용해 보세요. 맑고 향기롭게 여러 활동 소식과 더불어 법정 스님의 귀한 저서와 말씀, 영상 자료를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App Store'에서 '맑고 향기롭게'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맑고 향기롭게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투고 안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원님의 귀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중앙모임과 각 지역 모임(대구, 광주, 경남모임)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신행활동을 하시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느낌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드러내지 않고 실천했던 활동 속에서 가슴 찡하게 느낀 속마음을 글로 나눠 주세요. 또는 자연의 소중함이나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경험담 회원들과 함께 실천하기를 권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월간 소식지에 수록된 분에게는 법정 스님 저서 '무소유'를 선물로 드립니다.

- **원고 규격, 분량** :
  – 한글 문서 기준 1,400자 내외
  (A4용지, 글씨 크기 10pt 1쪽 분량) 산문 형식
- **접수 방법** :
  – 글 쓰신 분의 간략 소개, 활동하시는 내용 소개와 더불어 원고를 clean94@hanmai.net 메일 접수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4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정기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3월 2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 일시 : 3월 4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법정 스님 14주기 추모 법회 및 주지 이·취임
● 일시 : 3월 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3월 1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3월 2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3월 2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부처님오신날 연등 공양
불기 2568(2024) 갑진년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3월 2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3월 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3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3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2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